

WWW.ELLE.CO.KR

# ELLE

stars

이제훈, 이동휘  
정용화, 김제동  
샤이니 키...

*man we love*

**GANG  
DONG  
WON**

**exclusive**  
BACKSTAGE  
ATTACK  
360도 패션쇼  
백스테이지 화보

**PINK  
IS NEW  
BLACK**

*upgrade your*

**BODY & SOUL**

외로운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엘르>가 케어해주는 건강식 다이어트 매뉴얼

MAY 2016 정가 6,000원



ISSN 1228-0798



memphis wonder

MEMPHIS가 돌아왔다

1980년대 Memphis의 오리지널 피스들을 10 꼬르소 꼬모 서울 전시장에서 만났  
Memphis와 각각 다른 이유로 연결된 세 명의 남자들은 <엘르>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Memphis의 정신적 지주 에토레 소트사스를 추억했다.

photographer JANG YEOP editor LEE KYONG EUN

Memphis는 미국의 도시 이름이 아니다.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였던 에토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가 1981년 그의 친구, 동료들과 결성한 창작 집단이다. 1970년대 건축과 디자인  
계는 모더니즘이 장악하고 있었다. 온통 각을 맞춘 건물에 블랙과 화이트 일색, 장식이라  
곤 일절 없는 미니멀리즘의 무게감은 몇몇 크리에이터에게 숨 쉴 틈 없는 감옥 같았다. 당  
시 60대를 넘긴 소트사스를 제외하곤 모두 서른도 안 된 열 명 남짓의 디자이너들은 어느  
저녁 밥 딜런의 노래 'Stuck inside of mobile with the Memphis blues again'을 들으며  
Memphis를 결성했다. 파격적이거나 실험적이라는 족쇄에 봉인된 온갖 컬러와 화려한 장식,  
불안정한 구조를 이용해 가구와 오브제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디자인계의 혁명과 같은  
사건이자 일종의 '무브먼트'였던 Memphis는 1987년에 소트사스가 손을 떼면서 잠시 잊힌 듯  
했으나, 최근 패션이나 아트 신에서 추앙받으며 다시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Memphis  
>전을 위해 Memphis 그룹의 디자이너 중 하나였던 우메다 마사노리, 현재 브랜드로 운영  
중인 Memphis 밀란의 CEO인 알베르토 알브리치, 소트사스 곁에서 수십 년을 함께 일해온  
카툰리스트 마시모 자이콘이 서울에 왔다. <엘르> 코리아가 그들과 마주 앉아 오래됐지만  
하나도 늙지 않은 Memphis의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1 미켈레 데 루치가  
디자인한 테이블  
'크리스탈(Kristall)'을  
들고 있는 알베르토  
알브리치.  
2 자신이 디자인한  
'타와라야' 복싱 링에 앉아  
미니어처 '긴자' 로블  
캐비닛을 어깨에 얹은  
우메다 마사노리.  
3 미켈레 데 루치가  
디자인한 소파  
'리도(Lido)'에 앉은  
마시모 자이콘.

알베르토 알브리치, 멤피스 밀란 CEO 멤피스가 아이에 회사로 존재하는 줄은 몰랐다 시작은 그랬다. 이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회사가 나중에 설립됐다. 그러나 비즈니스가 되자 사공이 많아지면서 에토레와 초기 멤버들이 손을 뗐다. 나는 모든 상황이 원만히 조율된 후 회사를 인수했고, 에토레를 찾아가 허락 겸 자문을 구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멤피스의 디자인들은 실용성에 초점을 둔 가구들과 다르게 예술 작품 같은,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집에 두고 가구로 쓰기에는 난감한데 가구란 꼭 사용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집에 놓이는 것이다. 나도 멤피스의 디자인 중에서 이런 건 왜 만들었나 싶은 것도 가끔 있다. 하지만 한 점의 가구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최근 멤피스가 다시 트렌드의 정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뭘까 멤피스가 당시 유행했던 극도의 실용주의에 대한 지루함을 표현하려 했듯이 현재도 뭔가 지루해졌다는 또 다른 반증이 아닐까. 장식적이고 화려하기만 하면 멤피스 스타일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자신이 멤피스 스타일에 잘 맞는다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받는데, 보통 멤피스를 카피했거나 과기스러울 때가 많다. 따라 하는 건 쉽지만 철학적인 해석을 해 내는 건 어렵다.

마시모 지아콘, 만화가이자 디자이너 에토레 소트사스와 인연은 1985년 멤피스 그룹이 아닌 소트사스 아소치아티(그의 건축사사무소)와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만화나 잡지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렸다. 일하던 광고 스튜디오에서 '밀란에 에토레 소트사스란 크레이지 맨이 있는데 나와 꽤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다. 열아홉 살이었던 난 객기를 부리며 '별로'라고 답했다. 젊을 땐 다들 그러다(웃음). 그러다 실제로 에토레의 비서로부터 한번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그 다음주에 난 밀란으로 날아갔고, 그게 시작이었다. 코믹 북 <에토레 Ettore>는 어떤 내용인가 48 쪽짜리 짧은 만화책이다. 디자이너 시리즈로 계속 출간될 예정인데 에토레가 첫 번째로 나왔다. 전기 같은 건 아니고, 내가 에토레를 만난 이야기와 1990년대에 70대가 된 에토레가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생각들을 말한 이야기를 두 파트로 나눴다. 에토레 소트사스와 수십 년간 일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호기심이 많았다. 동시에 그는 대단한 예술가로 대접받는 것을 싫어했다. 학생들에게도 마에스트로가 되고 싶지 않아 했고, 나를 마에스트로라고 부르곤 했다(웃음). 멤피스가 왜 의미 있나 80년대 이전엔 누구도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맞았다. 엔지니어나 메이커뿐이었다. 베스파의 디자이너가 누군지 알고 있나? 아름다운 올드 카들의 디자이너는? 그 당시엔 아무리 예쁜 것이 나와도 누가 디자인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멤피스 멤버들이 처음으로 디자이너를 전면에 내세웠고, 내러티브가 있는 가구를 만들었다. 필립 스타크가 디자인한 주서 주시 살리프(Juicy Salif)도 그런 제품이다. 기능은 있지만 기능이 전부는 아닌. 그게 디자인이다. 지금이야 아무나 자기를 디자이너라고 소개하지만 말이다(웃음). 직접 디자인도 하고 있다 에토레와 일한다는 건 디자인계에서 정문으로 들어간 거나 같은 뜻이기에 빅 브랜드와 작업할 기회도 비교적 쉽게 얻었다. 인생은 짧다. 하나만 하다 죽기엔 아쉽다. 나는 만화계에서는 지나치게 예술적인 만화가. 디자인계에서는 만화나 끼적거리 는 이방인으로 불리고 싶다.

우메다 마사노리, 디자이너 '타와라야 북싱링 베드', '미니 긴자' 디자인 멤피스와의 작업은 어떻게 하게 됐나 서른을 갓 넘긴 나는 밀란에서 소트사스의 회사에 다니다가 일본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전화로 멤피스 가입 권유를 받았을 때 주변인들이 하라고 강권해서 디자인만 보냈다. 왜 하고 싶지 않았나 9년 동안 밀란에 살면서 많이 지쳤고 문화 차이가 많았다. 창작이란 한계가 없어야 하

1 에토레 소트사스가 디자인한 오브제들, 왼쪽부터 알리오트(Alioth), 니오베(Niobe), 알코(Alcor), 필라타(Fililla), 아타만테(Atamante).  
2 에토레 소트사스의 대표작 혹은 멤피스의 아이콘이 된 디자인 컬론(Carlton).  
3 멤피스를 이끈 에토레 소트사스의 사진과 핑크 컬러로 벽면 전체를 채운 전시장.



는데 소트사스의 작업이 메인 디시라면 아닌 누구라도 일본인의 작업은 셀러드로 쓰이는 셈이었다. 메인 디시에 내가 동의하지 못할 때조차 한 점에 담겨야 한다는 것에 항상 아쉬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디자인에 오면서 디자인계의 어떤 점이 변화했다고 생각하나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다. 컴퓨터는 굉장히 발전했고 변화했지만, 새로운 걸 못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의 데이터를 반대하게 모으는 것이니까. 디자이너는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작업할 때도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멤피스만의 독창성일까 우리는 디자이너라 기보다 화가에 가까웠던 것 같다. 형태보다 색깔의 강렬함은 누구도 따라 할 수 없었다. 마케터들이 한 가지 색깔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색깔로 에디션을 내면 더 많이 팔릴 거라고 했는데, 소트사스는 그런 타협에서 '노로' 일관했다. 1990년에 출시한 대표작 플라워 체어 '겅수엔'은 어떻게 탄생한 것인가 아내가 꽃을 좋아한다. 도쿄에 아주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거기 핀 여러 꽃들을 의자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작약 모양의 새로운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이테크 소재로 사람이 앉으



면 퍼지고 일어나면 원래의 꽃 모양으로 복원된다. 아내를 엄청 사랑하는가 보다 아내는 플라워 체어 말고 내 작품을 별로 안 좋아한다. 딸들도 항상 싫다고 한다. 고양이만 내 디자인을 이해해 준다(웃음). 고양이 의자를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다. 고양이 발바닥에 젤리처럼 폭신한 부분을 형상화한 2인용 암체어를 만들려고 한다. 평생을 디자이너로 살아왔는데 바뀌지 않은 철학이 있다면 별로 없다. 앞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얼마나 작품을 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없는 것,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작품을 만들었을 때 찾아오는 강한 행복감이 있다. 그 순간의 기분만은 변함없다. ■

